

광주시, 원예·특작농업 집중 육성... ‘무등산 수박’ 명맥 잇는다

25억원 투입...지역특산물 육성·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추진
농가 실질 소득 증대 초점...기후 위기 대비 환경 개선 사업 강화

광주시가 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등산 수박’의 명맥을 잇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원예·특작 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6 지역특산물 및 원예특작농업 육성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골자는 원예·특용작물 품질 향상과 재배 시설 현대화다.
올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5억4000여만원 규모다.
재원은 시비 7억9735만원(30%), 구비 7억9735만원(30%), 자부담 9억5346만원(40%)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역특산물(무등산수박) 육성, 지역특작작목 육성,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시설원에 환경개선,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등 총 7개 분야를 지원한다.
우선 광주의 자부심인 무등산수박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3억9169만원을 투입한다.
북구 지역 7개 농가(2.6ha)에게 생산 장려금과 농자재를 지원하며, 공정육묘장 구축과 기계장비 도입을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빈번한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다경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에 5억 원을 투입하고, 양액재배 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시설원에 환경 개선 사업에도 2억3480만원을 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계절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

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추, 딸기, 토마토 등 지역 특화 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억6666만원을 들여 수정별과 인공배지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한 경감제 지원(6666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1억3333만원), 이산화탄소 공급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5500만원) 등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광주시는 2~3월 중 자치구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농가 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 위기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료·요양·돌봄 한번에”...전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순항

182억8900만원 투입...25개 지원사업·6개 특화 서비스 추진

전남도가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체계 가동을 앞두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한달 여를 앞두고 제도과 조직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금 사는 곳에서 누

리는 통합돌봄’과도 궤를 같이한다.
전남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방문진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올해 사업비로 국비 91억여원 등 총 182억8900만원을 확보하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전남도는 올해 보건 의료, 건강관리,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 25개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복지기대, 찾아가는 건강버스 등 6개 특화 서비스를 통해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7월 TF를 설치,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 대상 교육과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도내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의료단체 등과도 협약을 맺었다.
전남도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조례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20개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마쳤다. 전남 조직과 인력배치도 완료했다.
22개 시·군 29곳에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해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장애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그린리모델링’ 입은 노후 임대주택, 에너지 소비 30% 줄었다

광주도시공사, 사업 효과 토크

광주도시공사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8일 광산구 우산동과 서구 금호·쌍촌동 일대 준공 15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단열재를 고효율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고, 세대 내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 주거 환경을 친환경·고효율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분석한 결과, 시공 전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입주민의 냉·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으로 직

결돼 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서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리모델링 후 임대료 인상’ 우려에 대해 공사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공사 측은 이번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시비 매칭으로 확보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임대료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물량을 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 개선을 넘어, 민간

통신사와 협력해 단지 내에 ‘기가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 정보 소외 계층인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사 기간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단지 내 빈집(공가)을 활용한 ‘순환형 이주 대책’을 시행해 공사 중 입주민들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고, 현장에 민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해 주민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시공 데이터와 입주민 피드백을 바탕으로 올해는 한층 고도화된 리모델링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구 농성2동 복합청사 개청 3일 오전 열린 광주시 서구 농성2동 복합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이 개청을 축하하며 리본을 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황기연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 5일 취임

황기연(사진) 제44대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5일 취임한다.
신임 황 부지사는 장흥 부군수와 전남도 경제통상과장, 과학기술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황 부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전략산업 등 현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1954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성경연구학과(Th.M.)	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0
		성경연구학과(Th.D.)	0
		사회복지학과(D.S.W.)	0
		코칭심리학과(D.Psy.)	0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0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0
		코칭심리학과(M.Psy.)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0
		재활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00
		평생교육학과(M.Ed.)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인문	신 학 과	00	0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00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 전형일: 2026. 2. 6.(금)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